

與 “변창흠 굉장히 심각”...부정 기류 확산 속 낙마엔 선긋기

‘구의역 김군’ 비하 논란 파장...여론 악화 부담

‘청년’ 박성민 “文정부 철학에 맞나...무마 안 돼”

‘구의역 김군’ 관련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부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여론 인사들은 낙마 사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노동’과 ‘20대 청년’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구의역 김군 사건에 대한 변 후보자의 설화가 불러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년 대변인 출신 박성민 최고위원은 2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 시사’에 출연해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사실 생각했다”며 “그런 인식들이 저는 사실 이것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맞는 가치의 발언이 있는가 생각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해명이라도 사실 무마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것이 송곳 검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분들은 이 분이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 능력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고 말하는데,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인데, 이전의 인식에 대해서는 쫓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나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후보자의 자질과도 연관 지어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변 후보자가 진정한 국민을 위해 공직자로서 일하고자 한다면 유가족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진심어린 사과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 금융노동위원회장인 박홍배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간부들에게 안전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건을 고인 개인의

탓으로 인식한 점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 후보자가 지난 18일 언론에 사과문을 내놨지만 김군의 동료들은 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임명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며 “변 후보자는 김군 동료들과 유가족을 찾아뵙고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 회의 석상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온 건 변 후보자 논란이 최근 민주당에 부정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20대 청년층과 노동계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민단체 청년전대일, 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 등 노동단체들은 전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변 후보자의 발언이 낙마 사유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사실 쉽게 뭐가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낙마에는 거리를 뒀다.

이원욱 의원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녁’과의 인터뷰에서 “전체

맥락을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며 “말이라고 하는 게 전체 맥락은 다 잘해도 예를 하나 딱 잘못 들으면 그것이 다인 양 실재는 반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논란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 전체 맥락을 좀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태까지 변 후보자가 보여 왔던 주거 문제에 대한 도시 재생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의지, 철학을 본다면 굉장히 훌륭한 후보자라고 생각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역시 맥락이 중요한데 지금 국민 여러분의 많은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 후보자) 본인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어떤 계제에서 어떤 맥락에서 그것이 나왔느냐하는 것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분이 (앞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상당히 전향적인 얘기를 했다”면서 변 후보자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포부를 거론하며 ‘정책검증’에 방점을 찍었다.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치러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의원들도 해당 발언이 변 후보자의 역량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 만큼 정책 청문회로 밀어붙이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국토위의 한 여당 의원은 뉴스쇼와의 “변 후보자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도시 빈민 운동도 했던 분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내부 회의에서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거친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두둔했다.

이어 “본인이 즉시 사과했고, 청문

회 과정에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잘 드러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능력이 있는 분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장관 청문회는 정책 검증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절박한 과제”라며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과 대안을 따져보고,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안철수 ‘범야권 연립정부’ 제시...국민의힘 입당 사실상 거부

“서울시 집행부 범야 인사 참여...정권교체 교두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정권교체를 위한 ‘범야권 통합’의 방법론으로 ‘범야권 연립정부’를 들고 나왔다.

‘범야권 연립정부’의 구체적인 그림

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야권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 서울시 집행부를 범야권 인사들이 참여하는 ‘연립 지방정부’로 구성해 정권 교체 교두보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로서의 공약이자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한 메시지로 읽힌다.

국민의힘의 입당 요구에는 선을 긋는 대신, 국민의힘 등 범야권과 함께 서울시 연립정부 구성을 약속함으로써 야권 통합의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0년의 적폐, 3년 반의 과오를 단시일 내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것도 없다”면서 “힘을 합쳐 혁신적 시정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서울시 집행부는 범야권 연립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립 서울시 정부’에 대해 “정권 교체의 교두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연립 서울시 정부에 범야권의 건강한 정치인, 그리고 전문 인재들을 널리 등용해 야권의 유능함을 보여주고 정권 교체 7부 능선을 향한 다리를 반드시 제 손으로 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신이 보궐 선거에서 승리하면 야권 인사를 등용해 서울시 연립정부를 통해 반문 연대와 보수 통합의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국민의힘을 향한 약속으로 읽힌다.

또 연립서울시 정부를 정권교체의 교두보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안 대표

가 대선을 겨냥해 내놓았던 ‘야권혁신 플랫폼’ 구상의 연장선이 ‘연립 서울시 정부’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결국 국민의힘과 당대당 경선을 전제로 선거연대를 통해 자신이 야권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에 당선돼 ‘야권 혁신 플랫폼’ 구상을 통해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국민의당도 안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 입당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당 사무총장인 이태규 의원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을 치를 가능성에 대해 “현재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원샷 경선부터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고 안 대표와 단일 경선을 붙이자는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판단해본 적은 없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소병철 의원은 조선으로 치른 첫 국정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극한대립을 보이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각종 현안들에 대해 치밀한 팩트분석과 깊은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대안까지 세심하게 제시하였다. 관련 보도자료도 총 27건을 발표하는 등 정책감각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검찰청 국감에서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과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추락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인터넷과 SNS에서 “사이다 발언 최고였다”, “품격있는 정치”, “선비어법” 등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등극하며 국감스타로 떠올랐다.

소병철 의원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된 만큼 국민들이 바라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검찰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

